



양돈은 나의 삶

배 호 상

창문 너머 별빛 속엔 어디선가 느껴지는 고요함을 멀리하고, 사랑하는 어린돼지의 저녁 사료를 챙겨주고 나면 오늘도 변함없이 저녁 10시를 훌쩍 넘기고 또 하루를 마무리 하는 중요한 일과 중 하나인 일보와 일기를 작성한다.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등 수많은 시간은 나에게 엄청난 힘과 용기와 자신감을 심어 주었고, 돼지를 사육하면서 지내온 작은 삶에 대해 얘기하려 한다.

내가 돼지를 사랑하게 된 동기는 다음과 같다.

89년도 농·수·축산물의 가공처리와 빵, 통조림 등을 공부하는 농산제조과의 학생이었다. 그러나 졸업 1년 정도 앞두고 사회생활을 바라본 나는 자영의 가능성이 힘들 것 같아 보였다. 이유는 10년 이상을 직장생활 하여도 관련 직종의 자영이 어려울 것 같아 보였다. 농촌을 사랑하고 가축과 전원생활을 꿈꾸며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자립의 욕심을 품고 양돈장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다. 당시 학생의 신분으로 오도바이 수리전문점에서 방과후 한 두시간씩 수리보조 일을 하여 월 오만원씩 용돈을 받았으며 양돈에는 깊은 관심을 가져 돼지사육 형태의 농원을 위해 열심히 돼지에 관한 공부를 하였다. 당시 내가 양돈을 배우며 양돈장에서 방과 후 일을 하였다. 일한 농장은 젃소 또한 15두가 있었지만, 나는 젃소에게는 큰 관심을 주지 않았다. 오로지 크든 작든 눈에 보이는 500두 정도의 돼지에게만 큰 관심이 있었으며 때로는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도 나는 돼지가 밉지 않고 사랑스러웠다. 당시 새벽 4시경에 일어나 젃소 착유 준비를 마치고 나면 사장님과 박 선배는 착유를 하였고, 나는 분만실로 곧장 달려가 포유자돈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등의 아침인사를 나눴다. 그리고 어미돼지 에게도 인사를 한다.

“잘 잤니? 밤새 새끼돼지 잘 키우느라 힘들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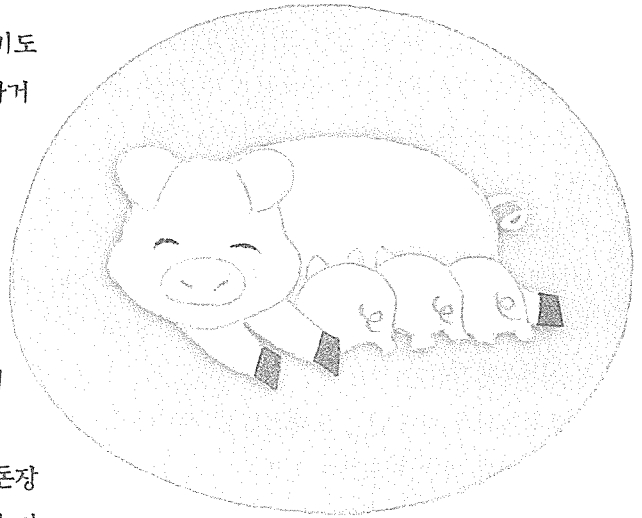
라고 인사를 항상 하며 돼지와 친하게 지냈다.

아침 기본관리가 끝나고 나면 아침을 먹고 8시경 사장님께서 학교까지 승용차로 태워 주셨다. 그리고 수업을 마치고 방과 후에는 오도바이 수리점에서 한 두시간의 수리보조를 하고 나면 다시 농장으로 가서 돼지와 젃소를 관리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용돈과 학비를 직접 수입으로 해결 하였으며, 축산연구 등의

모범생에게 시상하는 장학금인 실습상을 받기도 하였다. 평범한 학생이라면 방과후 집으로 가거나 도서관으로 갈텐데 나는 그렇지 않았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가난으로 인한 교육의 제한을 내 자식에게는 물려주지 않겠다는 각오로 똑같은 학생에게 주어진 24시간을 최대한 절약하고, 노력하며 사회에 일찍 적응하기 위한 아름다운 노력을 많이 하였다.

나는 학교를 졸업하고 돼지가 좋아서 종돈장으로 취직하여, "매일 열심히 살자, 상사보다 더 노력하자"라고 일기의 맨 앞줄과 마지막줄로 쓰며 하루 하루를 보냈고, 시간은 어느덧 10년이 흘러 작은 농원의 경영자가 되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 돈사 전체를 둘러보고 아침식사 후부터 늦은 저녁까지 나는 항상 돼지와 같이 생활하며, 하루의 대부분 시간을 사랑하는 돼지와 함께하는 나는야 정말 행복한 직업의 소유자인것 같다. 그래서 나는 항상 돼지사육의 경영이 재미있고 보람을 느낀다. 보통의 회사원과는 다른 특별한 재미가 있는 것 같다.

사실 나에게도 6년 전까지 쉽지않은 농장사원의 생활을 하였고 그 얘기를 조금 하려 한다. 김해 소재의 작은 종돈장에서 농장장으로 농장 생활의 바쁜 시간을 보내야 했다. 처음 입사했을 당시 이 종돈장은 우수한 웅돈에 걸맞지 않게 너무나도 외소해 보였다. 그래서 나는 당시 사장님께 번식돈 확장과 검정돈 출품을 하여 자신감과 용기를 보여 주었고, 입사 후 첫 작업단계로 우수혈통을 찾아 계획적인 교배작업을 시작하였고, 그



후 5개월정도 시간은 정말 바쁘게 흐르고 42두의 핵심 돈군을 60두로 확장하였고, 출품준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당시 새벽 4시경 사랑하는 아내의 정성들인 아침밥을 먹고 이른 새벽에 출근하여 웅돈 정액을 채취하여 실험실에서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고 1차 희석하고 나면, 또 다른 웅돈을 정액 채취실로 몰고와 정액을 채취한다. 다시 기록하고 나서 1차 희석하고 나면 2차와 3차를 거쳐 질 좋은 정액을 재확인하여, 포장하고 판매 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는 인공수정센터 일도 나의 일이었다. 물론 종돈장의 농장장이다 보니 돼지사육과 분양 준비등 문제돈 발생시도 대부분 나의 책임이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러하듯 모든 분야에 완벽한 사람은 없으며, 모든 상황에 완벽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얼마나 실수를 줄이고 최선을 다하여 그 결과에 만족하느냐가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다음의 계획과 차질 없는 실천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고를 잘 처리하는 자 보다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는 지혜와 경험 또한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그래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업무는 바로 웅돈 관리였다. 그 이유로는 첫째, 질 좋은 정액이 필요한 인공수정센터의 업무적 이미지 관리와 고객 관리 때문이었으며, 두 번째로 우수한 번식돈을 확보하여 우수한 종돈장으로 만드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나의 작은 소망이었던 최우수 종돈장만들기였다.

부족하지만 적지 않은 노력으로 최선을 다 하였다. 내가 가진 지식보다 부족한 지식을 보충하기 위해 항상 노력했다. 지금의 모습보다 미래를 위한 나를 위해 공부에 또 공부를 했다. 물론 양돈공부가 전체의 절반을 넘기는 상황이었다. 당연히 종돈장이라 양돈잡지는 항상 나의 양돈 공부의 동반자였다. 계절별로 필요한 정보가 있어서 참 좋았다. 그 후 시간은 5개월정도 지나 검정소에서 연락이 왔다. 농장장인 내가 출품한 돼지가 최우수돈에 선정되었다고. 나는 너무 기뻐다. 그러나 규모 등의 일부사항으로 최우수 종돈장은 아니었지만, 당시 사육되고 있던 듀록과 요크셔, 랜드레이스 3가지 품종을 모두 제2검정소에 출품하여 각각 최우수돈을 탄생시켰다. 그러나 당연한 결과였다. 그래서 나는 나의 노력보다 돼지에게 더 감사하게 생각하여, 웅돈방에서 한 시간 정도를 웅돈들과 얘기하며 놀아주었다. 우수한 유전력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였다. 사실 좋은 돼지를 좋은 환경에서 우수한 인력이 사양관리하면 좋은 성적은 당연히 보일 것이나, 지금 우리양돈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

다. 물론 일부에서야 환경적 조건과 위생적 상황을 가축을 기준으로 하여 설계·운영되는 농장도 일부는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돼지고기 소비자의 기준으로 볼시 극히 일부의 농장에서만 안전한 축산물생산을 위한 초반적시스템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국내는 물론 외국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 생산자는 소비자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생산되어야 하며, 특히 위생적 기준은 세계 어느 나라를 둘러보아도 엄격하게 관리, 감독되고 있다. 물론 내가족이 생산자이고 우리 가족이 소비자이다, 라는 좋은 생각을 지녀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런 점을 우리나라 모든 축산인들이 함께 노력하고 실천하며 제도적 문제는 보완하고 하루 빨리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길 간절히 바라며, 양돈인의 사랑은 내가 베풀 사람으로 만들어지며 보호되는 것이다.

또한 사랑하는 농장은 진정한 노력과 끊임없는 관심으로 실현되어야 하는 아름다움이 필요하다. 그리고 안전한 축산물은 철저한 방역과 빈틈없는 위생관리로 실천 되어야 할 것이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사고방식은 우리 양돈산업의 위기를 재촉시키는 장본인이 되는 사항을 우리 모두에게 꼭 견제되어야 하는 사항임을 명심했으면 좋겠다.

돼지를 사랑하고 미래양돈의 큰 꿈을 가진 농부가. **양돈**